

流配가사를 통하여 살펴본 가사의 변모양상

金 惠 淑*

序

歌辭는 時調와 더불어 朝鮮朝의 詩歌장르에 있어서 實로 重大한 位置를 占領하고 있는 文學 樣式이다.

1929年 閩南 趙潤濟 先生님의 歌辭研究를 筆頭로 現在까지 歌辭의 名稱, 概念, 起源, 發生, 장르處理問題, 作家, 形態 및 韻律, 歷史的 展開, 分類 等에 對한 수많은 研究와 새로운 作品發掘 및 個別的 作品 分析, 資料 整理 等의 作業이 不斷히 繼續되어 왔다.¹⁾

그러나 이러한 諸 分野의 研究들이 저마다 異論으로서 混雜되어 있어 아직 定說로 統一된 것이 없는 形便이고 또 研究의 가장 根源的인 核心이 되어야 할 作品 資料의 集大成 및 註釋이 完璧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形便이어서 歌辭文學에 對한 보다 積極的인 研究가 時急히 要請되고 있다고 하겠다.

歌辭文學의 作品研究分野에서는 主로 作品의 紹介 및 有名作品을 爲主로 한 個別的 分析 考察 및 比較文學的 考察 또는 作家別 研究 및 時期別 研究 等이 主流를 이루었던 것 같다.

이에 本稿에서는 同一한 素材를 가진 一群의 作品들을 一括하여 分析

* 博士課程(國文學專攻)·울산공대

1) 鄭炳昱「古典文學의 再認識」에 紹介된 研究史와 李能雨「歌辭文學論」에 紹介된 論著目錄

同學 呂運弼의 授業時間中 報告書 “歌辭研究史” 參照.

考察하여 봄으로써, 歌辭文學의 面貌를 再考하고 그 變遷狀을 더듬어 보려고하는 作業의 一部分으로 優先 現存되고 있는 流配歌辭들을 一括的으로 考究해보고자 한다.

李朝의 歌辭가 後期에는 兩班 階層에서 平民 階層으로 享有範圍가 擴大되었으나 全時期를 걸쳐 量的으로 볼 때 兩班歌辭가 支配的이라고 보여진다. 儒教의 理念을 바탕으로하는 李朝 社會에 있어서 兩班 階級의 至上의 目標는 科舉에 及第하여 벼슬길에 올라 治民의 理想을 達成하는 것이었을 것이고 그하기에 流配는 그들의 一生을 通하여 가장 錯雜한 感懷를 자아내는 삶의 고비요 逆境이었을 것이다. 逆境에 處했을 때 人間은 自然 反省과 悔恨과 思索에 잠기게 되며 日常에서 發露되지 않았던 自身의 깊은 人間性을 露出하게 된다. 또 官職에 있을 때는 奔走多事하여 榮華로운 雾圍氣 속에서의 即興의 創作 程度가 可能할지 모르나 講客生活이라는 한가함과 錯雜함, 새로운 環境과 處地에서는 人生과 自然, 時局에 對한 眞摯한 觀照가 可能할 수도 있을 것이요 創作欲을 刺戟받아 詩作에 專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流配歌辭는 李朝 兩班歌辭에 있어서 큰 比重을 차지하는 분야로서 그들의 문학적 재능 및 특질을十分反映하고 있을 것으로 期待된다.

1. 流配歌辭의 範疇

流配란 五刑의 하나로서 罪人을 차마 刑殺할 수 없어 王京에서 떨어진 먼 地方으로 쫓아 보내는 것을 말하는데 中國에서는 舜 임금이 共工을 幽州에 流配시킨 것과 魔兜을 崇山에 追放한 것이 처음으로²⁾ 그後 歷代를 거쳐 施行되어 오다가 清朝에 이르러 廢止되었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流刑의 制度가 언제부터 始作되었는지는 正確히 알

2) 辭海「流」字 註 參照。

「五刑之一。謂不忍刑殺 宥之於遠也。按流刑在我國 刑罰制度中行之最早。舜流共工於幽州，放驩兜於崇山，即流刑也。」

수 없으나 李朝時代에 있어서는 死刑과 啓杖의 中間에 屬하는 刑罰이 있다고 한다. 甲午 翩年(1895) 以前에는 王都로부터 配所까지의 距離에 依해서 罰의 輕重을 가렸는데 以後에는 流配期間의 長短으로 罰의 輕重을 가렸다 한다.

流刑執行의 方法으로는 陸地에 配하는 것, 섬에 配하는 것, 安置, 圍籬安置, 充軍 遷徙, 放逐田里 等이 있다.

普通은 配所에 보내면 그냥 그곳에 放置하여 두어 配所地의百姓들이 거두어 주게 되어 있고, 安置의 境遇는 配所에 따로 場所를 指定하여 幽閉시키는 것이고 圍籬安置는 安置의 한결 무거운 境遇로 流配地에 一定한 을타리를 만들어 그 속에 幽閉하는 것이라 한다. 充軍은 먼 땅인 邊境에 보내어 그곳을 守備하는 軍에 服務케 하는 것이고 遷徙는 故鄉에서 千里 밖으로 떠나 살게 하는 것, 放逐田里는 住居를 田園에서 하게 하고 오직 本鄉이나 王都에 사는 것을 禁하는 것이라 한다.³⁾

流配歌辭란 歌辭의 分類를 内容의 側面에서 試圖한 분들에 依하여 提起된 名稱이다. 그 大體의 論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朴晟義氏는 “歌辭의 分類巧”에서 歌辭를 名稱上 分類, 作家別 分類, 内容上 分類로 三大分한 後 内容上 分類를 다시 32項으로 分類하면서 ‘流配’의 項에 (귀양살이를 노래함)이라 하고 「北遷歌」, 「續思美人曲」, 「萬言詞」, 三篇이라 하였다.⁴⁾

李相寶氏는 “歌辭의 内容”에서 金起東, 李泰極, 徐元燮 教授의 見解를 紹介한 後 主題面과 宗教面을 綜合한 内容別 分類에서 8項을 設定하고 그중 ② 流配歌辭라 하여 「萬憤歌」, 「思美人曲」, 「續美人曲」, 「別思美人曲」, 「續思美人曲」, 「自悼詞」, 「北關曲」, 「萬言詞」, 「北遷歌」等을 들고 ‘配所’에서 지은 것들이라 規定하고 있다.⁵⁾

3) 張德順, “流配歌辭試考” 國文學通論(신구문화사, 1968).

4) 朴晟義, “歌辭의 分類巧”(京畿 2집 1976).

5) 李相寶, “歌辭의 内容” 韓國歌辭文學의 研究(蠻雲出版社, 1974).

柳廷善은 “歌辭文學의 作家別 및 内容別 分類考”에서 内容別 分類에 53項을 設定한 다음 ‘流配歌類’에 「續思美人曲」, 「北遷歌」, 「萬言詞」, 「萬憤歌」, 「自悼詞」를 들고 ‘流配是 直接 素材로한 作品’이라 規定하였다.⁶⁾

李慈淳은 「歌詞歌辭論」의 “主題別 研究”에서 流配歌辭에 對한 特別한 定義 없이 「北關曲」, 「續美人曲」, 「北遷歌」, 「萬言詞」, 「別思美人曲」等 을 들고 있다.⁷⁾

張德順 先生님은 「國文學通論」과 「韓國文學史」에서 流配歌辭에 對하여 보다 本格的으로 言及하고 있는데

“「歸鄉」이라는 概念을 좀 크게 設定하여 하나는 呂술을 辭하고 鄉里로 돌아가는 정 말 「歸鄉」과 다른 하나는 罪名을 쓰고 遠地로 放逐되는 「流配」의 둘로 生覺할 수 있다. 따라서 「歸鄉文學」이라는 樣式的 用語가 쓰일 수 있다면 여기에는 流配의 體驗과 또는 그것을 素材로 한 모든 作品과 流刑 아닌 鄉里生活을 素材로 하고 그 體驗을 作品化한 것이 包含되리라고 생각한다.”⁸⁾

라하여 結局 流配文學을 罪名을 쓰고 遠地로 放逐되는 流配의 體驗과 또는 그것을 素材로한 모든 作品으로 보았다고 하겠다.

實際 作品으로는 「北關曲」, 「謾言詞」, 「北遷歌」를 들어 簡單히 論述하고 있다.

以上의 論議와 流配의 性格을 參照하여 볼 때 流配歌辭는 優先, 單純한 隱退나 寓居가 아닌, 罪名을 쓰고 刑을 받아 放逐된 流配 그 自體의 狀況을 背景으로 한 作品이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歌辭文學의 絶唱이라고 할 수 있는 松江 鄭澈의 「思美人曲」과 「續美人曲」, 曹友人의 「自悼詞」等은 流配歌辭로 取扱하기에는 問題點이 있다고 보인다. 「思美人曲」은 松江이 宣祖 18年 8月 兩司의

6) 柳廷善, “歌辭文學의 作家別 内容別 分類考”(語文論集 第11집, 高大, 1968. 12).

7) 李慈淳, “歌詞歌辭論”, 國文學研究 第四輯(서울大國文學研究會, 1966).

8) 張德順, “流配歌辭試考”, 國文學通論(新丘文化社, 1968).

論斥을 받아 高陽으로 물러났다가 곧 昌平으로 내려와 宣祖 22年 10月 까지 四年間을 隱居하던 중 그 三年째되던 宣祖 21年(1588)에 지은 것이요 「續美人曲」은 「思美人曲」의 未盡한 情懷를 이은 것이라 하니⁹⁾ 兩 美人曲이 비록 임금으로부터 疏外된 感情을 노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流配의 心情을 노래한 것이라고 까지는 볼 수 없을 듯하다. 曹友人の 「自悼詞」 또한 流配의 狀況에서 制作된 것은 아니다. 1621(光海君 13年) 制述官으로 서울에 올라와 古宮의 荒廢함을 보고 詩를 지은 것이 白大衍 等 李爾瞻 一黨에 依해 大逆의 뜻이 있다는 誣告를 받아 投獄되어 1623年 仁祖反正으로 풀려나올 때까지의 獄苦中에 制作된 것이니 이도 또한 流配歌辭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流配歌辭의範疇를 ① 流配의 狀況에 處하게 되어 그 體驗을 바탕으로 쓰여진 歌辭 ② 作家自身이 直接 流配를 經驗하지 않았더라도 流配를 素材로하여 쓴 歌辭로 限定하고 「萬憤歌」(曹偉), 「別思美人曲」(金春澤), 「續思人曲」(李眞儒), 「北關曲」(宋疇錫), 「萬言詞」(안도원), 〈萬言詞, 思父母, 思伯父, 思妻, 思子, 萬言答詞〉, 「北遷歌」(金鎮衡)等을 該當 作品으로 보았다.

2. 作家 및 制作 經緯

萬 憤 歌

曹偉가 燕山君 戊午土禍(1498)때 順天配所에서 지은 것이다.

曹偉(1454~1503)는 字가 太虛, 號는 梅溪, 昌寧人으로 縣監 隸門의 아들이요, 金宗直의 妻男이자 門人이었다. 벼슬은 同知中樞府使 兼 副摠管에 이르렀고 杜詩解, 佔畢齋文集 等의 編纂을 맡아 成宗의 寵愛를

9) 參照; 李相寶, “鄭澈의 松江歌辭”前揭書.

金思權 “鄭松江과 그의 文學觀” 李朝時代의 歌謡研究(學園社, 1962).

徐首生 “松江의 前後思美人曲研究”(慶北大 論文集 6집, 1962).

받았다.

金宗直의 ‘弔義帝文’이 말썽이되어 戊午土禍가 일어나게 되자 金系의 文人學者들은 詆殺, 流配되었다. 曹偉는 當年聖節使로 明에 갔다가 韓國途中 義州에서 被逮, 枝流되었다가 順天으로 移配되어 燕山君 9년(1503) 49歳를 一期로 講所에서 病死하였다.

別思美人曲

肅宗 32年(1706) 8月 北軒 金春澤이 濟州島 流配時에 지은 것이다.

北軒(1670~1717)은 西浦 金萬重의 從孫이며 肅宗妃 仁敬王後 金氏의 親庭 조카이다. 1689(肅宗 15) 己巳換局으로 西人이 除去되자 집안이 크게 禍를 입어 그도 여러번 流配 또는 投獄되었다. 1694年 甲戌獄事로 南人이 失脚하자 풀려 나왔으나 西人이 다시 老論, 少論으로 갈라지자 老論에 屬하여 1697年 少論의 彙劾으로 한때 流配, 1701年 巫蠱의 獄事로 扶安에 다시 流配 1706年(肅宗 32年) 世子(景宗)를 謀害하려 했다는 誣告를 받고 罪가 加重되어 濟州에 安置되었다. 이때 「別思美人曲」을 지었다. 北軒集과 松江別集에 나타난 記錄에 依하면 松江의 兩美人曲을 模倣하여 지은 作品이라 한다.¹⁰⁾ 詩才가 뛰어나 名望이 높았으며 從祖父의 小說 九雲夢과 謝氏南征記를 漢文으로 翻譯했고 詩文 10冊과 漫筆 1冊을 남겼다.

續思美人曲

李真儒가 英祖 四年(1728) 椒子島에서 지은 것으로 보인다.

李真儒(1669~1730)는 字는 士珍, 號는 北谷, 本貫은 全州, 肅宗 33年(1707) 進士가 되고 이해 別試文科에 丙科로 及第 이듬해 檢閱에 登用

10) 北軒集 卷四 論詩文

「吾家西浦翁, 堂手寫兩詞於一冊書其目曰謬經余來濟州 又以謬作別思美人曲
追和松江兩詞, 其辭比松翁益婉 其調比松翁益苦」松江別集 追錄遺詞。
「金春澤曰…余來濟州 又以謬作別思美人詞 追和松江兩詞 留傳於州妓之善歌者」

徐元燮 “思美人系歌辭의 比較研究”(慶北大 論文集 11집, 1967)에서 再引用

되었다가 그 後 校理, 修撰을 지냈다. 穎宗 42年 少論으로서 「家禮源流」의 序文과跋文에서 少論의 領首 尹極을 非難한 그 筆者 權尚夏 鄭浩의 處罰을 主張하다가 削黜 景宗 1年 正言에 起用되고 이듬해 司諫으로서 世弟(英祖)의 代 聽政을 建議한 老論 四大臣을 彈劾, 이들을 除去했으며 이어 金一鏡 等과 함께 辛壬土禍를 일으켜 老論을 穎清했다. 副提學, 吏曹判書 兼 左副賓客을 歷任, 1724년 景宗이 즉자 告訃副使로 清나라에 다녀왔다. 英祖가 登極하자(1725) 金一鏡 一黨이 몰리게 되었고 그때 마침 中國使臣으로 갔다오던 李眞儒도 그 涼中에 浮沈하여 英祖 元年 正月에 羅州로 귀양七月에 楸子島로 移配 國籬安置 當하였다가 中央에押送되어 間招반던 中杖斃하였다.

「續思美人曲」은 楸子島에 流配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歌辭 첫 머리에 “삼년을 님을 떠나 해도의 유락하니”라고 한 것을 보아 英祖 四年(1728) 작으로 보인다.

北關曲

尤菴 宋時烈의 孫子 宋疇錫이 祖父가 禮論으로 몰리어 穎宗 1年(1675)에 德源으로 귀양가게 되매, 26歳의 젊은 나이로同行하여 그 前後 事實과 路程을 노래한 것이 北關曲이다.

宋疇錫(1650~1692)의 字는 叙九, 號는 鳳谷, 本貫은 恩津이다. 1683年(廟宗 9年)增廣之科에 乙科로 及第, 檢閱, 修撰을 거쳐 校理에 이르렀다.

萬言詞

萬言詞는 正祖 때의 大殿別監 安道원이 지은 것이다. 正確한 制作年代는 알 수 없으나 作品中에

“어와 내 일이야 光陰을 해여보니 半生이 채 못되어 六六에 들이 없네.”

라고 한 것을 보아 作者가 三十四歳 때 楸子島에 流配되어 지은 것으로 보인다.

奎章閣 圖書館 所藏 가람本 ‘만언소’의 末尾에 記錄되어 있는 바에 依하면 安도원은 容貌와 風采가 뛰어나고 文章筆法이 사람을 놀랠만하고 言辯이 有餘하고 聰明하여 正祖가 極히 사랑하여 畫夜 近侍로 仕宦하였는데 上寵을 믿고 御印을 盜賊하여 한 일이 發覺되니 死刑에 處할 것이로 되 前日의 寵愛를 生覺하여 濟州 絶島인 楸子島에 終身流配하였다고 한다. 生還할 期約이 없어진 安도원은 글(萬言詞)을 지어 本家에 보냈다. 그의 叔母와 四寸누이가 大殿尙宮이라 이 글을 보고 슬퍼하니 宮女들도 이를 보고 哭泣하였다. 正祖가 어느날 이 모습을 目擊하고 그冊을 가져오라하여 읽혀듣고 安도원을 即時放送하여 所任을 주었다 한다.

北遷歌

金鎮衡이 哲宗四年(1853) 明川에 定配되었다. 放免된 後 지은 作品이다.

金鎮衡의 字는 德種, 本貫은 義城이다. 1853年 弘文館 校理로 吏曹判書 洪箕淳의 背公黨私를 論斥하다 修撰 南鐘順에게 몰려 同年 七月 明川으로 定配되었다.

以上으로 볼 때 流配歌辭의 作者들은 當時 學問과 벼슬이 높고, 뛰어난 門閥을 背景으로한 사람들로서 黨爭의 涼中에서 反對黨에게 몰려(安도원만이例外), 楸子島(李眞儒, 안도원), 濟州島(金春澤)等의 絶島나 順天(曹偉), 明川(金鎮衡)等의 邊地로 流配된 사람들自身이다. 末疇錫만은 流配者自身이 아니나 流配者的 孫子이고 또 謫所까지 陪行했으니 그 立場에 있어서 餘他의 人物들과 別로 다름이 없다고 하겠다.

3. 形式과 韻律 및 그 變化

陶南 趙潤濟先生이 歌辭의 形式을 四·四調의 連續體라고 規定지은 以來로 數많은 論議를 거쳐오면서 歌辭의 形式에 對하여는 大體로 다음

과 같은 見解가 云謂되고 있는 듯하다.

即 가장一般的인 見解는 歌辭는 3·4調 또는 4·4調의 連疊形式으로 이루어진 長型詩로 内·外二句가 모여 基本의으로 3·4·3·4 或은 4·4·4·4의 字數律을 가지는 1行을 이루며 1行은 4音步格인데 行數에는 制限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金思燁, 李能雨, 李泰極, 金起東같은 분들은 落句가 時調의 終章과 같다는 것을 또 한 特徵으로 들고 있으며¹¹⁾ 李泰極氏와 金起東氏는 落句가 時調의 終章과 같은 境遇를 正格(正型) 4·4調가 終章까지 繼續되는 境遇를 變格(變型)으로 規定하기도 한다.

또 각句의 音數律이 3·4調 中心인 것을 正型, 4·4調 中心인 것을 變型으로 보고 前者를 前期歌辭, 後者를 後期歌辭의 特性으로 規定짓기도 한다.¹²⁾

그런가하면 鄭炳昱 先生님 같은 境遇는 歌辭의 리듬을 高麗歌謡 및 雜歌 民謡, 唱謡 等의 리듬과同一한 것으로 보아 四步格 强弱律을 가진 것으로 보고 그 形式은 四音 中心의 非聯詩型으로 보았다.¹³⁾

以上과 같은 論議를 念頭에 두고 流配歌辭의 境遇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⁴⁾

「萬憤歌」는 總 124行 247句로 全行이 四步格으로 되어있으나 第12行에서 13行으로 넘어가는部分이

어와 이내몸이	천지간에 느저나니(11行)
황하수 물다만는	초객의 후신인가(12行)

11) 金思燁, 李朝時代의 歌謡研究 p. 302.

李能雨, 國文學概論 pp. 125~126.

12) 李相實, 前揭書 pp. 24~25.

13) 鄭炳昱, 國文學散藁(新丘文化社 1959).

14) 「萬憤歌」「北闢曲」은 李相實著 “李朝歌辭精選”을 「別思美人曲」「續思美人曲」「北遷歌」「萬言詞」本詞와 萬言詞答은 “註解歌辭文學全集”(金聖培外 3人)을 「萬言詞」中 「사부모」「스백부」「스쳐가」「사자」는 가람본(奎章閣所藏)을 Text로 하였음.

상심도 ㅋ이업스고 가태부의 넉시런가(13行)
 한숨은 무스일고 형강은 고향이라
 십년을 유락하니

와 같아 그 内的 意味를 看做하여 볼때 ‘황하수 몬다만눈’과 對가 되는 外句가 없어지면서 호흡이 바뀌고 있다. 結局 「李朝歌辭精選」에 表記는 위와 같이 되었더라도 第12行은 單句로 되었다고 보아야 옳으며 ‘초객의 후신인가, 상심도 ㅋ이업고’를 13行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第13行은 二步格이 된다고 하겠다.

字數律은 2·2字 1句, 2·3字 25句, 2·4字 23句, 3·3字 4句, 3·4字 131句, 4·3字 2句, 4·4字 61句와 같다. 3·4와 4·4가 主를 이루며 3·4字과 全句의 切半을 훤씬 넘고 있다. 末行은 “백세 교유 만세 상감 흐리라”와 같아 時調 終章型 落句를 取하고 있지 않다. 또 이 末行이 바로 앞 行 “아모나 이내뜻 알니곳 이시면”과 內容의 으로 對가 되어 繁密이 連結되어 있어 獨立의 으로 落句의 구실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北關曲」은 總 116行(232句)로 全行이 모두 四言步格으로 되어 있다.

字數律은 2·3字 5句, 2·4字 11句, 3·3字 9句, 3·4字 185句, 3·5字 1句, 4·4字 21句와 같아 全句의 80% 가량이 3·4字를 取하고 있다. 末行은 “겨냈것 모다 안자, 이사설 니르려니”와 같으며 앞 2行과 獨立의 으로 存在한다고 할 수 없어 亦是 落句로서의 구실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別思美人曲」의 境遇는 「註解歌辭文學全集」에 收錄되어 있는 바에 依하면 總 78行 156句로 되어 있으나 筆者の 所見으로는 12行~15行 部分이 그 内的 韻律의 呼吸으로 볼 때 表記된 그대로를 一行으로 看做할 수는 없을 것 같다. 即

엇언지 님향한 한 조각이 마암을 하라비 심기시고(12行)
 성현이 가라치서 명학이 알텨 있고
 부월이 두해이셔 일백 번 죽고 죽어
 뼈가 길니된 후라도 님향한 이 마암이 변할손가

나도 일을 가져 남의 업 산 것만 어더(16行)

와 같은데 이것은 詩의 內的 韻律의 呼吸으로 볼 때 마땅히 다음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엇언지 님 향한	한조각 이 마암을(12行)
하라리 섬기시고	성현이 가라치서
명학이 알터잇고	부월이 두해이서
일백번 죽고죽어	뼈가 길니 된 후라도
님향한 이 마암이 변할 손가	
나도 일을 가져 남의 업 산 것만 어더	

이와 같이 본다면 79行 157句로 前行이 四音步格이나 16行은 三音步格으로 되어 一般的인 規則性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겠다.

字數律은 2·3字, 6句, 2·4字 20句, 2·7字 1句, 3·3字 3句, 3·2字 1句, 3·4字 81句, 4·5字 1句, 4·3字 2句, 4·4字 41句, 3·4·4字 1句(1行)으로 3·4자가 52%를 차지하고 있다.

末行은 “각시님 잔가득 부으시고 한 사람 이자소서”와 같으며 앞행과 獨立의으로 作品 全體를 結束 짓고 思의 餘韻을 머물게 하는 效果를 가지고 있어 이른바 落句에 該當한다 하겠다.

「續思美人曲」은 總 187行 374句로 全行이 四音步格을 가지고 있다. 字數律은 2·3字 28句, 2·4字 23句, 3·3字 3句, 3·4字 248句, 3·6字 1句, 4·4字 70句로 亦是 3·4와 4·4가 主를 이루며 3·4자가 66%에 達한다.

末行은 “두어라 왕서 괴개지랄 여일망지 하노라”와 같으며 앞행과 意味의으로 繫密한 聯關係가 없이 獨立되어 있어 落句로 볼 수 있겠다.

「萬言詞」는 萬言詞 「本詞」와 「사부묘」「사배부」「수처가」「사자」「萬言詞答」의 六篇으로 되어 있는데 「萬言詞」本詞가 727行 1,454句로 全篇 四步格을 取하고 있으나 中間에

“어와 보리가을 되었는가 전산후산에 황금빛이로다.”

란 行에서는 混亂을 보이고 있다. 이 境遇 “어와 보리 가을 되었는가”란 内句는 그 內的呼吸으로 볼 때 分明히 三音步格으로 看做되어 “전산 후산에 황금빛이로다”란 外句도 萬言詞의 全篇의 他句에서 類便되고 있는 語彙와의 比重으로 볼 때 分明히 四音步로 볼 수 있다. 即 “한숨끝에 눈물나고 눈물끝에 한숨이라” “玉食珍饌 어데가고 麥飯鹽漿 쳐하오며”의 句와 比較하면 ‘前山後山에’와 ‘한숨끝에’ ‘눈물끝에’ ‘玉食珍饌’ ‘麥飯鹽漿’의 句가 가지는 呼吸은 같다고 볼 수 없다. 後者の 境遇는 넉자 가 단숨에 넘어가는 呼吸이지만 前者の 境遇는 前山과 後山의 境遇 分明히 休止가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行의 境遇에는 ‘어와 보리가을 되었는가’를 한 行으로 ‘前山後山에 황금빛이로다’를 한 行으로 보아야 하며 全篇의 行數로 728行, 1,455句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字數律은 2·3字 35句, 2·4字 25句, 3·3字 5句, 3·4字 634句, 3·5字 1句, 4·3字 3句, 4·4字 750句, 5·4字 1句, 2·4·4字 1句로 3·4가 44%, 4·4가 52%로 主를 이루고 있다. 落句는 없다.

「사부모」의 境遇는 總 54行 108句로 全篇이 四音步格으로 2·3字 1句, 2·4字 2句, 3·4字 5句, 4·3字 1句, 4·4字 99句로 4·4字가 92%로 主를 이룬다.

「소백부」는 15行 30句로 全行 四音步格이며 3·4字 4句, 4·4字 25句, 6·4字 1句로 4·4字가 主를 이룬다.

「소처가」는 44行 88句, 全行 四音步格 2·3字 5句, 2·4字 1句, 3·4字 3句, 5·4字 1句, 4·4字 78句로 4·4字가 主를 이룬다.

「사자」는 19行 38句, 全行 四音步格 3·4字 3句, 4·4字 35句이다.

「萬言詞答」은 148行 269句, 全行 四音步格, 2·3字 2句, 2·4字 3句, 3·4字 79句, 4·4字 212句로 4·4字가 主를 이룬다.

結局 「萬言詞」全篇은 總 1,008行 2,015句인데 3·4字가 728句(36%), 4·4字가 1,199句로 60%, 4·4字가 主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사부모」「소백부」「소처가」「사자」各篇의 落句는 없고 「萬言詞答」의 境遇는 “이

말처럼 시골말이 열되드리 정말이다.”의 末行이 落句로 處理되기는 하였으나 時調 終章型은 아니고 4·4調이다.

北遷歌의 境遇는 ‘註解歌辭文學全集’에 收錄되기는 總 517行 1,032句로 되어 있으나 意味上의 休止에 따른 內的呼吸을 考慮할 때 內外二句로一行을 이루는 것이 517行, 1句로 1行을 이루는 것이 20行이고 記錄上의 過誤로一句를 二句로 나누어 記錄한 것이 2回 있어서¹⁵⁾ 結局 總 536行 1,030句로 볼 수 있다. 字數律은 2·4字 4句, 2·5字 1句, 3·4字 714句, 4·4字 310句, 4·3字 1句며 落句는 없다.

以上의 檢討로 綜合하여 볼 때 流配歌辭는 最短 79行 157句(別思美人曲)에서 最長 1,008行 2,015句(萬言詞)에 達하는 長型歌辭라고 볼 수 있는데 本稿에서 對象으로 한 六篇 中 松江의 兩美人曲을 模倣하여 지었다는 北軒 金春澤의 「別思美人曲」만이 對話體形式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五篇은 制作者自身의 一人稱敘述體形式을 取하고 있다. 大體로 3·4調 또는 4·4調의 字數律을 主調로 하고 있다는 點에서는 餘他의 歌辭와 다름이 없다고 하겠다. 다만 前期歌辭는 3·4調를 主로, 後期歌辭는 4·4調를 主로 한다는 見解와는 다른 現象을 보이고 있어 本稿에서 다루고 있는 現存 流配歌辭 六篇 中 萬債歌를 除外한 五篇이一般的으로 云謂하는 後期¹⁶⁾에 屬하는 作品들인데도 不拘하고 3·4調를 主調로 하는 作品이 支配의이고 또 萬言詞는 4·4調 主인데 比하여 그보다 後에 制作된 北遷歌는 支配의으로 3·4調가 優勢한 것을 보면 3·4調를 主로 하느냐 4·4調를 主로 하느냐 하는 問題는 時代의 差異보다는 作者의 身分과 보다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 같다. 即 兩班歌辭는 3·4調를 平民歌辭는 4·4調를 主調

- 15) 金聖培 外 3人; 前揭書 “종전을 감추오고 풍악중에 안자드니” 兵使가 취한후에 소래를 크게 하되
“밤한경 새운후에 鶴鳴時에 소쇠하고 君山月을 깨워내니.”의 두 境遇이다.
- 16) 李東英; 歌辭文學論考(p. 15) pp. 155~157을 參考하면 李朝歌辭를 前後二期로 兩分할 境遇壬辰倭亂을 分水嶺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견해에 따랐음.

로 取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듯하다. 萬言詞가 餘他 流配歌辭와는 달리 4·4調를 主로 하고 있는 것도 ‘安道원’이란 作者가 ‘大殿別監’이라는데 理由가 있는 것 같다. (대전별감은 평민은 아니지만 문화계층으로 볼 때 양반과 평민의 완충적 위치로 순수양반 계층보다는 평민에 근접해 있으며 가사의 내용으로 보아도 평민가사의 특징이 많이 발견된다)

그런데 앞서 各 作品의 字數體를 檢討하면서 이미 言及한 바 있거니와 原典이 아닌 整理本의 境遇에 編輯者 또는 註解者の 個人的的 意見에 依해 歌辭의 行과 句가 區分되어 表記되고 있는데 原典의 境遇 그것은 全篇이 띠어쓰기 없이 잇달아 記錄되어 있거나 或은 意味나 內的呼吸을 配慮함이 없이 無條件 二行씩 짹을 지워 記錄한 것이 大部分일 것이므로 表記되어 있는 그 自體도 行數, 句數, 音數律를 規定하는 것 보다는 內的呼吸이나 意味論의 緊密性 如何에 따라야 하리라 본다. (또는 음악과의 연관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오늘날 이는 도저히 추측할 도리가 없다)

音步律은 「萬言詞」에서 한 行과 「別思美人曲」에서 한 行이 三音步를 取하고 있을 뿐 全體의으로 四音步를 固守하고 있으며 각 行의 中間에 休止가 있어 二句로 區分된다. 다만 北遷歌의 境遇에는 비록 字數律은 1,030句中 6句를 除外한 1,024句가 3·4調 또는 4·4調를 嚴格히 維持하고 있어도 二句가 한 行을 이루지 못하고 외짝으로 떨어진 句가 20回나 發見되고 있어 詩的呼吸이 崩壞되어가고 있는 感을 준다. 이것이 或是 後期에 이르러 歌辭의 音步律이 崩壞되어 나가고 있는一般的現象은 아닐는지 앞으로 많은 作品을 살펴보고 檢討해 볼 餘地가 있다고 보인다. 歌辭作品을 朗誦하여 내려가다보면 3·4調 또는 4·4調의 字數律 보다는 四音步의 律格이 훨씬 더 리듬感을 支配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字數가 같은 넉 자리 하여 內的呼吸이나 리듬感이 같지 않음은 앞서 「萬言詞」의 子數律을 檢討하는 部分에서 이미 言及 했거니와 音步律의 變化가 詩의 律調를 散文化한다는 事實은 다음을 보면 알 것이다.

명학이 알터있고 부월이 두해이서
 일백번 죽고죽어 뼈가 길니된 후라도
님향한 이마암이 별할손가
 나도 일을 가져 남의업산 것만이더

(1) (別思美人曲)

영화만곡 김흔고대 개심대 쓸나가니
 단풍은 비단이요 소성은 거문고라
상상봉 노재봉파 만사암 천문암파
 타자봉 주작봉은 기림으로 들너지고
 물형으로 높고높다 악양곡 한곡조를
두妓生 불너니

(2) (北關曲)

①의 境遇 四音步가 밀줄 친 行에서 三音步로 바뀌므로 하여 리듬感을 무너뜨리고 全體를 散文化하는 感이 있으며 ②의 境遇 밀줄 친 세句中 한句만 빠지면 詩的 리듬感은 깨어지지 않는다. 세句가 모두 3·4調를 取하고 있으나 이 境遇 리듬感은 여지없이 崩壞된다. 이에 比하여 '두妓生 불너니'는 다른 句들과 字數가 맞지 않지만 리듬을 崩壞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겠다. 아울러 流配歌辭의 境遇 字數律이 3·4調나 4·4調에서 벗어난 餘他의 律調를 가지는 句數를 制作年代順으로 살펴보면 「萬債歌」 22%, 「北關曲」 11%, 「別思美人曲」 22%, 「續思美人曲」 15%, 「萬言詞」 4%, 「北遷歌」 11%로서 制作年代가 거슬려 올라갈수록 外形的으로 規則的인 字數律에서 벗어나고 있는 傾向이 強함을 發見하게 된다. 그런데 後述하겠지만 歌辭全篇을 흐르는 詩的 緊張感은 「萬債歌」나 「別思美人曲」의 境遇 規則性을 強하다고 할 수 있으니 結局 歌辭의 音數律이 3·4調 또는 4·1調에서 벗어나지 않는 句가 많을수록 作品은 外的이고 機械的으로 反復되는 리듬에 빠져 오히려 몇 句만 字數律이나 音步律에서 벗어나면 詩的 緊張感은 崩壞되어 散文的 印象을 주게된다고 하겠다.

流配歌辭 六篇 中, 몇몇 분들에 依하여 論議되었던 이론바 落句를 가

진 것은 「別思美人曲」과 「續思美人曲」과 「萬言詞」中의 「萬言辭答」이다.

4. 内容과 構成 및 그 變化

流配歌辭가 流配를 素材로 한다는 共通的 特徵을 가지고 制作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具體的인 内容은 同一한 要素들로만 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萬憤歌」와 「別思美人曲」을 流配 當한 心情과 戀君의 情을 主로 하여 辭를 이끌어 나아가고 流配의 經緯나 流配地에서의 生活狀은 極히 抽象的으로 溶解되어 있다.

오동 절은 비의	외기력이 우러 벨제
관산 만리 길이	눈의 암암 불티는듯
청련시 고쳐움고	탈도 한을 슷쳐 보니
화산의 우는새야	이별도 괴로 왜라
망부 산전의	석양이 거의로다
기도르고 부라다가	안력이 진롯런가

(萬憤歌)

離別의 괴로움과 그리움이 절절히 호를 뿐 作家의 具體的인 生活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며 기리기 우는 밤에 詩를 읊거나 山 위에 올라가면 곳을 바라보는 모습을 想像할 수 있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의 比喻일 뿐 生活의 實狀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萬憤歌」속에는 이와 같이 離別의 괴로움, 戀君의 그리움, 政敵에 對한 怨望, 自身의 漂白에 對한 하소연, 벼슬길의 險難함 運命論의 自慰 等이 거듭거듭 反復되면서 點綴되어 있다.

「別思美人曲」의 境遇에도

나도 일을 가져	남의 업 산 것만어더
부용화 오살짓고	목난으로 나앗사마

한랄거 맹세하여	님 섬기랴 원이려니
조물이 식기한가	귀신이 희즈온가
내 탈자 그만하니	사람을 원망할가
내 몸의 지은죄를	모라니 과 더죄라
나도 모라거니	남이 어이 探아도던고
한라하살 마인가	이몸이 되네이서
만슈 천산의	가고 가고 도가잇내
님계신의 생각하니	궁인들 어이갈고

임금에 對한 忠節과 自身의 漂白, 政敵에의 憎望, 그리움 等이 主를 이루고 있다.

即 「萬債歌」와 「別思美人曲」은 感情 爲主의 緒情的 内容이 主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比하여 「續思美人曲」「北關曲」「萬言詞」「北遷歌」의 境遇는 임금의 信任을 얻는 過程, 流配를 嘗하는 經緯, 家族親知와의 離別과 發行, 流配地까지의 路程, 流配地에서의 生活狀 等이 具體的, 直說的으로 描寫되어 있다. 이제 作品別로 그 具體的인 内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續思美人曲」

序詞部分을 거쳐 本詞에 들어오면 優先 다음과 같이 明으로부터의 使臣길에서 歸國함을 描寫하고 있다.

서하의 식욕하고	샤자거로 도라오니
봉황성 다다르며	고국소식 경심하다
황혼의 뱃지약을	다시거의 차줄너니
참언이 망극하니	님이신들 어이 할고

이어서 임금의 特別한 사랑과 信任을 叙述하고

금오리 금택귀랄	벽제역의 만나보고
선산에 잠간드러	통곡하여 배별하고
성서 구택의	가묘의 하직하니
원근 친척이	손잡고 니별할새

와 같이發行을 具體的으로 描寫하였다. 이어 호남길, 老嶺, 南州大都會→月南村→梨津→楸子島 뱃길→楸子島의 順序로 流配 路程을 그때 그때의 感想과 더불어 叙述하고 配所의 環境, 生活狀을 叙述, 끝으로 自身의 無事함과 임금에 對한 그리움, 寵愛回復의 热望 等을 叙述하고 있다.

「北關曲」의 境遇에는 孝宗大王의 恩寵을 입다가 大王이 异遐하매 禮論에 몰려 緣坐되어 待罪하다가 流配길에 오르게 되는 頓末, 流配地까지의 路程, 配所에서의 故鄉생각 및 政敵에 對한 울분을 담고 있다.

「萬言詞」의 本詞에서는, 34年間의 自身의 生을 回顧하여, 죽은 아이로 태어나, 11歲에 어머니를 여의고 繼母를 맞고 學文과 글씨를 익히고, 結婚하고 放蕩한 生活을 하다가, 改過遷善하여, 다시 學問을 익혀, 宮闈에 들어가게 되고, 過分한 天恩을 믿고 罪를 짓고, 流配의 身勢에 이르기까지의 半生을 時間의 順序에 따라 叙述하고 이어自身의 罪를反省하고 귀양길을 떠나는 離別의 슬픈(家族과의) 心情을 말한 다음 陸路와 海路를 거쳐 楸子島에 이르는 路程, 謫所의 環境을 叙述하고 謫所에서의 生活狀이 時間의 흐름에 따라 季節別로 叙述되어 있다. 임금에 對한 忠節이나 그리움은 전혀 描寫되어있지 않고 苦生스러운 生活狀의 描寫가 主로 되어 있으며 苦生을 견디다 못해 죽고싶은 心情과 아울러 「사부모」「소백부」「소처가」「사자」라는 小題目 下에 家族에 對한 그리움과 追憶을 叙述하고 있다.

「萬言詞答」은 隣인이 「萬言詞」本辭에 和答한 内容으로 되어 있는데 謫所에서의 죽음이 父母와 妻와 임금에 對한 道理에 어긋남을 叙述한 後 放還될 때의 기쁨을 具體的으로 말하였다.

「北遷歌」의 境遇도 明川으로 流配됨을 말한 後自身的 엿벗함을 吐露하고 이어 配所까지의 路程, 配所에서의 生活, 狀放, 還歸路의 路程, 家族과의 再會의 順으로 叙述되어 있다.

要컨대 流配歌辭는 萬言歌를 嘴矢로 하여 初期에는 임금에 對한 忠節

과 配所에서의 戀君之情, 自身의 漂白, 政敵에 對한 傷怒, 寵愛回復에 對한 热望 等 主로 情感的인 것을 內容으로 하다가 後期에 접어들수록 流配를 當하기까지의 生의 過程, 流配地까지의 路程, 配所의 環境, 部 所에서의 生活狀 等 敘事的이요 記錄的인 內容에다 그때 그때의 感想을 결들인 것으로 變하여 自敘傳的 性格을 둔 隨筆 乃至는 記行隨筆의 內容으로 變하여 왔다고 하겠다.

그 構成方法도 初期에는 일관성있는 心情的 內容을 다른 表現을 빌어 누차 反復하므로써 情感을 점층적으로 高調하는 手法을 取하고 있으나 後期로 올수록 時間의 繼起順에 따라 事件을 連結 說明해 나가는 方法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한편 流配歌辭는 그 內容을 中心으로 본 構成에 있어서 序詞와 本詞를 區分할 수 있다는 共通的 特徵을 가지고 있다.

序詞는 本詞에서 具體的으로 敷衍될 內容의 要旨를 提示함으로써 本詞의 內容을 이끌어 잘 실마리가 된다.

천상 배옥경	십이루 어듸매오
오색운 김픈곳의	자청전이 그려지니
천문 구만리를	啐이라도 갈동말동
초라리 쇠여지여	억만번 변화하여
남산 늦춘 봄의	두견의 닉시되어
이화 가더우희	밤낮을 못울거든
삼청 동리의	겸은 한닢 구름되어
느립의 흘리느라	자미궁의 느라울라
옥황 향안전의	지척의 나아안자
홍중에 싸힌말숨	술 시커스로리라

이것은 「萬憤歌」의 序詞인데 流配의 身勢가 되어 임금과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는 立場에 處해 胸中에 쌓인 말을 실컷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 인데 '이 홍중에 싸힌 말숨'의 具體化가 本詞의 內容이 된다.

「續思美人曲」의 境遇에도

삼년을 님을 떠나	해도의 유락하니
내언제 무심하여	님의게 득리한가
님이 언제 박정하여	날 대접 소히한가
내얼굴 곱듯먼지	절루할산 중녀로다
유한한 이내몸을	선음한다 나라노쇠

라하여 本詞에서 님의 두터운 思寵, 衆人の 謙訴, 流配의 實狀 等이 具體的으로 敷衍되는 本詞를 이끌어 나가며

萬言詞는 태어나면서부터 流配地에서 해를 넘길 때 까지의 半生을 살아온 生의 內容이 本詞에서 張皇하게 敷衍되는데 序詞에 이미 그것이 提示되어 있다.

어와 벗님내야	이내말삼 들어보소
人生 天地間에	그여니 느껴온가
(7行 省略)	
어와 내일이야	광음을 헤어보니
半生이 채못되어	六六에 둘이업네
已往일 생각하고	即속일 헤아리니
翻覆로 测量업다	昇沈도 하도할사
남대되 그러한가	내흘로 이러한가
아모리 내 일이나	내亦是 내몰래라
長吁短歎 절노나니	島中傷感 뿐이로다

翻覆昇沈의 34年間의 已往일의 自初至終과 島中傷感의 具體化가 本詞가 된다.

「此遷歌」와 「北關曲」의 境遇도 각각 처음 14행과 6행이 序詞가 되고 「別思美人曲」의 境遇 처음 6행이 甲女의 辭說로서 本詞에서 展開될 乙女의 ‘설운말삼’을 誘導하고 있으나 仔細한 例示는 省略하기로 한다.

5. 表現 技法의 變化

流配歌辭를 훑어 나가다 보면 그 첫作品이라 일컫는 「萬憤歌」에서

「北遷歌」에 이르는 동안 表現 技法이 엄청나게 變化하고 있음을 發見하게 된다.

아래에 任意로 各歌辭의 몇 구절을 뽑아 對比해 보면 그 變化를 確然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長安 어제 밤의	무서리 셋거치니
日暮修竹의	翠袖로 冷薄홍샤
유란을 것거쥐고	님겨신더 봐라보니
약수 구리진되	구름길이 머흐려라.

(萬憤歌)

서하의 식 옥하고	사자거로 도라오니
봉황성 다다르며	고국소식 경심하다

(中略)

금오리 금택귀랄	벽체역의 만나보고
서산 구택의	가묘의 하직하니
원근 친척이	손잡고 나별할새

(續思美人曲)

무단이 내 달아서	小人の 敵이 되여
부월을 무톱스고	天庭에 上疏하니
니전으로 보게 되면	빗나고 을천만은
요요한 이세상에	남다를 일이로다
疏한장 오르면서	萬朝가 韻々하다
이와 惶悚할사	天威가 震怒하니
削奪官職 하시면서	嚴治하고 식중하니

(北遷歌)

江頭에 배 를대어	父母親戚 離別할제
슬픈눈물 한숨소리	漠漠愁雲 머무는듯
손잡고 일온말삼	고희가라 당부하니
가삼이 막히거든	對答이 나을소냐
江上에 배며나니	離別時가 이때로다
山川이 근심하니	父子離別 합이로다

搖棹一聲에	흐르는 배 살갈으니
一帶長江이	어느덧 가로서라
風便에 우는소리	진江을 건너오네
行人도 落淚하니	내가삼 뛰어진다
呼父一聲 엎더지니	애그소리 뿐이로다.

(萬言詞)

東窓이 已明하고	太陽이 높았으니
개울리 일어 앉아	굽은다리 퍼울적에
삭다리를 조기는듯	마디마다 소리난다
돌담뱃대 잎 난초를	쇠똥불에 부쳐물고
陽地를 따라 앉아	옷에 이 주어낼제
아니 빗은 헌은머리	두귀밑을 덮어있네

(萬言詞)

年代의으로 가장 앞선 萬憤歌(1498)의 境遇 流配의 經緯를 단지 '長安 어제 밤의 무서리 셋거치니'의 簡略한 表現으로 象徵하고 있다. 長安도 어제밤도, 무서리 셋거침도 모두가 實際 事實을 直敘하는 날말이 아니 과 하나의 比喻는 象徵에 屬하는 語彙이다.

이에 比하여 複선 後代에 屬하는 北遷歌(1853)의 境遇 流配에 處해지 기까지의 政治的 狀況이 詳細히 서술되어 있다.

「萬憤歌」나 「別思美人曲」에서도 離別場面의 기술 같은 것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 「續思美人曲」(1728)만 해도 離別의 過程이 比較的 詳細히 描寫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續思美人曲」에서 '원근 친척이 손잡고 이별할때'의 한 귀로 表現된 같은 内容이 「萬言詞」에 이르면 위의例에서 보여주듯 더욱 寫實的으로 描寫되고 있다. 그것은 「萬憤歌」와 「萬言詞」가 보여 주고 있는 謔所의 生活 表現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萬憤歌」에서도 '유란을 것거쥐고 님 겨신디 브라보니'의 句에서 象徵的 手法으로서 自身의 生活모습을 암유적으로 表現함과 同時에 漂白과 戀君의 心情을 含蓄하여 나타내고 있지만 「萬言詞」에서는 추위에 멀

다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펴고 起動하는 生活의 모습이 寫實的으로
描寫되어 있다.

要컨대 「萬憤歌」나 「別思美人曲」처럼 年代의으로 比較的 먼저 制作된
作品의 境遇에는 比喻와 象徵的 表現으로써 生活狀이나 實際 事件을 暗示하고 同時に 內的世界를 含蓄性있게 表出해 내어 詩的 緊張感과 아울러
內的 리듬感까지도 造成하고 있는데 反하여 後期에 接近할수록 寫實的
的手法으로 狀況을 그려 事件의 經緯를 說明의으로 直敘하는 方法을 取하고 있어 小說의 描寫法 乃至는 隨筆的 敘事 技法에 接近하고 있는 感을 준다.

그리고 後期에 接近할수록 列舉法을 길게 자주 쓰고 있는데 強調의
效果나 具體化의 效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無意味한 外的 리듬
感만을 노리고 있음을 發見하게 된다.

陳蔡之厄을 聖人도 못면 헤며
裸絶非罪를君子인들 어이 헤리
(萬憤歌)

새사람 되앗구나	君山月을 다시보니
옥분에 옮겨구나	형극중에 색진난초
방불군자 만나구나	지애에 야광주가
뉘를보고 나왔든냐	신총에 뜻친칼이
임자를 만나구나	꽃다운 어린자질

(北遷歌)

어와 고이하다	다리 指稱 고이하다
구름다리 징검다리	둘다리 토다리라
春正月 十五夜	上元야 밤은달에
長安市上 열두다리	다리마다 바람불어
玉壘金樽은	다리다리 杯盤이요
橫聲歌曲은	다리다리 風流로다
웃다리 아래다리	석은다리 헛다리

鐵物다리	板子다리	두다리	돌아들어
中村을올라	廣通다리	굽은다리	水標다리
孝經다리	馬鹽다리	아량위	겼다리라
도로올라	中學다리	다리나려	향다리요
東大門안	첫다리미	西大門안	학다리
南大門안	수각다리	모든다리	밟은다리
이다리	저다리	今始初聞	귀향다리
수동다리	습다린가	天生이	病身인가
아마도	이다리는	失足하여	病든다리

(萬言詞)

「萬憤歌」의 境遇 潔白과 不遇를 象徵的으로 代辯할 수 있는例를 들만
列舉하여 말 밖에 包含되어 있는 無限한 暗示로서 自身의 處地로 充分히
表現하고 있다.

「北遷歌」의 境遇는 ‘꽃다운 어린자질 임자를 만나구나’를 被充 說明
하기 為하여 “횡국중에 ~나왔드냐”의 三行을 列舉하였다. 그 中의 한
行만으로 比喻에 그친 境遇보다 詩的 繁張整은 오히려 減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萬言詞」의 境遇는 ‘다리’ 타령을 길게 늘어놓아 ‘귀양다리’란 말에서
받은 作者의 羞恥感을 함께 느끼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作者의 딱한 處
地는 暫時 잊어버리고 ‘다리타령’의 혀놀림에만 빠져들게 되어 作者의
立場을 深刻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판소리解說이나 판소
리系 小說에 삽입되어 있는 語戲謔가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手法인
語戲的 表現 技法이라고 하겠다. 그결과 시적 긴장을 지속시켜 주는 內
의 리듬감은 여지없이 봉괴되고¹⁷⁾ 단순한 박자감각에 의거한 유치한 謔
的 리듬만 表皮的으로 감각되어 시가로서의 여운이 거의 없고 단순한 말
놀이의 재미만 느껴진다.

17) 보다 고차원적인 시의 리듬감각은 자수율이나 음보율보다는 표현기법의 긴
장도와 연관된 내용과의 상관관계에 의한 것임은 자유시의 경우를 보아 분
명하다.

以上으로 歌辭文學研究에 作品論에서 問題될 수 있는 事項들을 現存 流配歌辭 6篇을 通하여 살펴 보면서 아울러 疏漏하나마 이러한 事項들이 流配歌辭 內에서 어떻게 變化하고 있는가도 檢討하여 보았다.

歌辭의 形式과 韻律에 關한 問題는 아무래도 3·4調니 4·4調니 하는 字數律에 지나치게 執着하기보다는 音步律에 基準을 두는 方法이 複선妥當할 듯하며 流配歌辭의 境遇基本 字數律에서 벗어나는 것이 詩的 리듬感에 何等의 損傷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詩的 리듬整과 繫張感은 表現의 技法에서 由來하는 것임을 發見하게 된다.

歌辭는 作品 制作 當時 作者가(또는 그후의 筆寫者가) 句나 行을 區分하여 記錄한다는 詩行 형식에 대한 意識없이 無條件 二句 셋을 짹지어 記錄했던 것으로 보이는 以上 오늘날 歌辭의 行을 區分함에 있어서 四音步에 基準을 두고 無條件機械的으로 行을 가르는 것은 不合理하다고 生覺된다. 가사가 악곡을 수반했던 시가 형식임을 고려할 때 악곡과의 연관에서 그 운율이 운위되어야 하겠지만 악곡을 상고할 도리가 없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의적 기록형태보다는 오히려 의미에 따른 유기적 관계에 의해 운율을 규정짓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제작연대를 알수 있는 것 중 가장 후대에 속하는 「北遷歌」에 이르러 內外 二句가 모여 四音步로 1行을 이루지 못하고 1句로 떨어지는 行이 자주 登場하는데, 다른 作品들을 널리 檢討해 보아 時期의 差異에 따라 일어나는 韵律(音步律) 崩壞現象이 아닌가 生覺해 볼 問題이다.

流配歌辭에 있어서 表現 技法은 年代의으로 먼저 制作된 것일수록 象徵的, 比喻的 言語를 使用하여 內面世界를 詩的 緊張感을 느끼도록 表出해 내고 있으나 後代에 내려오면 寫實的, 直叙的 表現法을 쓰고 있어 小說의 描寫法이나 隨筆的 表現 技法에 接近하고 있다. (이를 '합축미'와 '부연미'라는 이름으로 구분지을 수 있을 것 같다)

前後의 文脈과 寫接한 聯關없이 無意味한 外的 拍子感覺만을 戲弄하는 語戲的 反復法이 잦아지는 것도 後代에 接近하면서 發見되는 現象이다.

流配歌辭에 表現되어 있는 内容도 初期에는 임금에 對한 忠節, 配所에서의 懸君之情, 自身의 潔白, 政敵에 對한 憤怒, 懷愛回復에 對한 渴望主로 描象的이고 情感的인 것을 主로 하고 있는데 後期에 接近해 갈수록 流配를 當하기까지의 過程, 流配地까지의 路程, 配所의 環境, 配所에서의 生活狀 等을 中心으로 한 敘事的이고 記錄的, 增告的인 内容에 다 간간이 感想을 결들여 自敘傳이나 記行隨筆的인 内容으로 變貌하고 있다.

그 構成方法도 初期에는 일관성 있는 心情的 内容을 다른 表現을 빌어 屢次 反復함으로써 情感을 深化 強調하는 것이었는데 後期에 接近할수록 時間的 繼起順에 따라 事件을 連結 說明해 나가는 平面的 方法을 取하고 있다.

本稿를 作成하면서 歌辭는 確實히 詩歌의인 것과 散文의인 特性이 混有되어 있는 장르임을 確認하게 된다. 歌辭의 表現技法과 詩的 韻律의 相關關係를 친학하여 歌辭의 장르에 關한 問題를 研究하여 보는 것도 興味있는 일이 될 것이라 生覺한다.

資料

金聖培外 3人編集：註解歌辭文學全集，精研社，1961.

李相寶：李朝歌辭精選，精研社，1965.

만언소：奎章閣圖書 가람本.

參考文獻

金起東：國文學概論，進明文化社，1973.

金思燁：李朝時代歌謡研究，學園社，1962.

李能雨：歌辭文學論，一志社，國文學概論，1978.

李東英：歌辭文學論巧，螢雪出版社，1979.

李相寶：韓國歌辭文學의 研究，螢雪出版社，1974.

張德順：國文學通論，新丘文化社，1963.

國文學史，同化文化社，1978.

鄭炳昱：한국 고전의 재인식，홍성자，1979.

韓國古典詩歌論，新丘文化社，1978.

國文學散藁，新丘文化社，1959.

韓國史：近世前 篇，後期篇，震擅學會編，乙酉文化社，1959.

參 考 論 文

高敬植：“梅湖別曲斗 自悼詞”，自由文學 49號。

朴晟義：“歌辭의 分類巧”，京畿 2집，1976.

徐首生：“松江의 前後思美人曲研究”，慶北大論文集 6집，1962.

徐元燮：“續思美人曲의 作者에 對하여”，語文學 13號，大邱，1995.

徐元燮：“思美人系歌辭의 比較研究”，慶北大論文集 11집，1967.

柳玗善：“歌辭文學의 作家別 內容別 分類考”語文論集 第11집，高大；1968.

李秉岐：“別思美人曲斗 續思美人曲”，國語國文學 15號。

李慈淳：“歌詞歌辭論”，國文學研究 第4 집，1966.

張德順：“北關曲”，現代文學 110號。